

'화엄법계' 일체생명 덩어리로 표현

허허당 스님 개인전 5월 6일~12일 가나아트센터서



'바람의 기억' 시리즈 중 하나인 '행복향'

"그리고 또 그랬습니다. 일체 생명의 자유와 아름다움, 깨달음을 염원하며 3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어디든 갔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생명이 있는 곳에 새를 날렸습니다. 수천수만 마리. 그리고 자유로운 새들이 날갯짓 속에서 즐기세포를 만들어 우주는 하나의 큰 생명의 덩어리임을 의했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존재 그 자체로 아마 충분히 아름답고 놀랍고도 신비로운 예술입니다." 세상은 일체 생명의 자유와 아름다움 그

리고 깨달음을 노래하는 무대라 말하는 허허당 스님의 '바람의 기억' 전이 5월 6일~12일 인사동 가나아트센터 1층에서 열린다. 스님은 '새벽' '바람 불지 않는 곳에 휘파람 불며' '달구경하는 사람' '행복향' 등 40여 작품을 전시한다.

'화엄법계도 백만동자 새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화엄법계를 일체 생명의 덩어리로 표현해낸다. "초기 작품들은 수천수만 동자승들을 배경화면에 가득 채워 그 속에 탑을 세우고, 나무를 심고 새를 날리고 꽃을 피우고, 숲을 이루어냈죠. 이

새 날갯짓·동자승의 연속적 이미지 화엄법계 생명의 덩어리로 표현해 4월, 긍정적 메시지 담은 신간 출간

는 생명 속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작품 역시 작은 동자승들이 모여 나무를 이루고 작품 전체를 완성하죠. 이는 만물의 생명의 흐름을 보여주며,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의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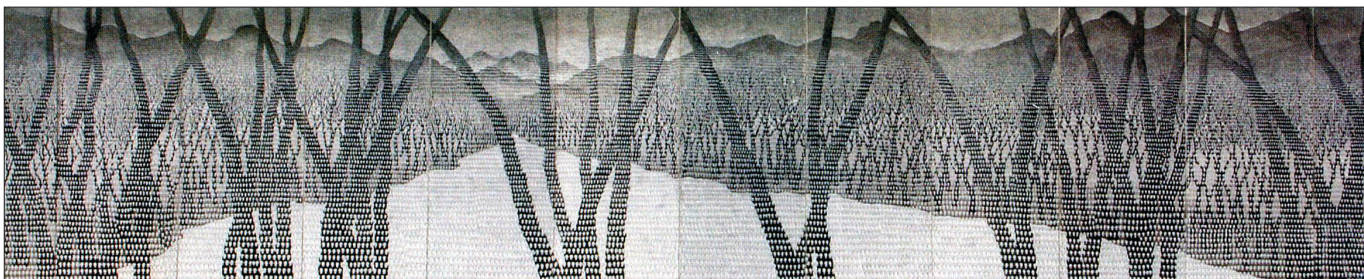
이처럼 스님 작품 대부분은 무수한 사물의 반복을 통해 새로운 화면을 구성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진리, 종교 등의 틀에서 벗어나 생명 그 자체에 울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죠. 작은 새가 모여 즐기세포가 되고 이 즐기세포가 모여 우주가 되고 우주가 큰 생명 덩어리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그림을 통해 혼자만의 세계는 없으며 깨달음으로 가는 이치를 보여주고자 했다. "결국 제 그림의 전부는 부처님 말씀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 있어요. '나'라는 생명이 또다른 생명과 만나 반응하면서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몸짓이 그림 속에 담겼죠."

스님은 남미 아프리카 북유럽 인도네시아 등 곳곳을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도 부처님을 만난다고. "지난해 아프리카와 북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지의 풍광을 보면서 인간의 삶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생각하죠. 부처님이 여기 계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항상 부처님과 도반이 되어 걷는 듯한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회상하는 매개체가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스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자유의 집'을 상징하는 표향 휴유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끊임없이 성찰하며 열심히 그리면 결국 누군가가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말하는 스님은 4월 정 책 출간도 앞두고 있다. 삶이 힘들어도 내면에 휘파람을 불며 긍정적으로 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02)736-1020 정혜숙 기자



화엄법계도 백만동자. '새벽' 허허당 스님은 동자승이 나무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생명 속에 생명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구도의 과정 춤으로... 깨달음 그려내

'이철진의 승무이야기' 6월 9일까지

전통 춤공연을 도심 한복판 소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한국춤예술센터(이사장 이철진)가 '2015이철진의 승무 이야기'를 연다. 올해로 9회를 맞은 '이철진의 승무이야기'는 6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8시 대극로 성균소극장에서 진행된다. 매해 승무를 소극장에서 정기공연하고 있는 승무가 이철진 씨는 올해도 40분 동안 숨막히는 승무의 감동을 전해줄 예정이다.

이철진 씨는 "승무는 한국 전통춤의 기본이면서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승무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춤의 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춤은 곧 고행이자 구도자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이철진 씨, 그는 고행과 수행의 과정 나아가 깨달음을 이룬 구도의 과정을 이번 승무 공연 속에 그대로 담아낼 것이다. 또한 살풀이춤, 태평무, 맨손살풀이, 소고춤, 진주교방궁거리, 교방검무 등의 전통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차명희, 정연희, 송영숙, 하애정, 주디정, 박승희, 김유진 등이 함께한다. 이와함께 (사)한국춤



'이철진의 승무이야기'의 한 장면

예술센터는 6월 14일까지 매주 금·토·일 '2015한영속류이철진춤'도 선보인다. (02)745-5035 정혜숙 기자

캔버스에 나투어진 마음속 부처님

불화가 김명희 개인전

불화가 김명희 개인전이 4월 1일~7일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미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아, 관세음보살도, 귀녀도 등 27점의 불화를 선보인다.

'자아'는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표현했다. "부처님 안에 또다른 부처님 그리고 다시 그 안에 관세음보살 이미지를 투영해 부처님이 제 마음 안에 있음을 표현했죠." '자아'는 불두와 그림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 흥미롭다. "왼쪽이 현재의 나라면 오른쪽은 내 안의 또다른 나라고 말할 수 있죠.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동시에 저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도' 역시 바다의 소용돌이 치는 모습을 중생의 마음에 비유했다. "불화 작업 때문에 제주도 관통사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때 돌아오는 길에 파도를 보니 소용돌이 치는 파도가 중생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이 제 마음속에 있지만 한번 소용돌이 치면 이 마음 견잡을 수가 없잖아요. 관세음보살은 실제의 관세음보살일 수 있지만 중생인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재동자를 바라보며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작가는 이 밖에도 중국의 벽화에서 그 형식을 빌려온 '귀녀도'와 연꽃으로 표현한 소품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남편의 권유로 94년부터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 김 작가는 7년째 조계사 청년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불화강사이기도 하



'자아'는 불두와 그림자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과정을 그려냈다.

4월 1일~7일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자아 관세음보살도 등 27점 선배 '재능보사'로 나누는 삶 발원

다. "제가 그림을 그릴 거라 생각해보면 적은 없어요. 당시,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직장을 잠시 휴직하고 조계사에서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불화를 그려 보라고 추천해준 게 인연이 되었죠. 지금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남편의 외조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는 조계사 청년부 불화반을 지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불

화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내면에 깃든 불심이 중심이 되어야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는 장애인 복지 시설, 보육원 등에서 10여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 그의 꿈은 불화를 통해 세상에 좀더 잘 쓰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들깨를 넣고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날 나혼자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장자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후부터 이웃과 함께하며 살겠다는 발원을 하게 됐죠. 그런 맥락에서 전시회에서 얻은 수익금도 다 기부할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교도소에서 불화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무용과 음악으로 만나는 '5천년의 중국'

뉴욕 선원예술단 4월 내한

미국 선원예술단(Shen Yun Performing Arts)이 2015년 시즌 월드투어 일정으로 4월 한국을 찾는다. 경기도 창원 대구 등을 순회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무용으로 표현한다.

선원예술단은 문화대혁명으로 소실된 중국의 5천년 전통문화를 부흥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뉴욕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선원 공연의 프로그램은 문명이 싹트던 5천년 전 고대 철화에서, 역사에 등장했던 여러 왕조와 오늘날 현대 중국의 모습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를 다룬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표현하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다채로운 무용으로 이끌어간다. 또 최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생동감 넘치는 무대배경과



5천년 중국 문화를 무용으로 펼쳐내는 선원예술단이 4월 내한한다.

수작업으로 제작한 수백 벌의 화려한 무대 의상도 놓칠 수 없는 관람 포인트이다. 선원예술단은 설립 9년 만에 단원만 400여명, 동일한 구성과 규모의 4개 공연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5개 대륙 100여 개 도시를 순회하며 4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선원 한국 공연은 4월 24~26일 경기도

군포문화예술회관, 4월 29~30일 창원 성산아트홀, 5월 3~4일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 예매는 선원닷컴(ShenYun.com)과 웹티켓팅(webticketing.co.kr), 그리고 인터파크, 예스24에서 가능하다. 1544-880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히말라야 고요왕국

지구상의 마지막 상그릴라, 사자의 서 파드마 삼바바 수행처인 탁상사원

부탄 순례

행복지수 1위!

출발일 4월10일/5월28일/6월19일

※6인 이상 매일 출발가능!!

순례가 시작되는곳

아제여행사

☎ 02)730-4008

{ 구광국대표 010-3048-4008 } www.ajetour.co.kr
{ 구경모이사 010-2747-0908 } SINCE1999

출: 4월 9일, 30일	구화산·황산 순례 4일 지장보살(99m), 천하비경 황산	₩99만
출: 6월5일	터키&그리스 9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파묵칼레, 아레메, 크로소스	
출: 4월14일 5/19, 6/22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 아미산, 낙산대불	
출: 5월29일	오대산 운강석굴5일 분수도량 오대산/운강석굴/행공사	
출: 6월5일	동티벳불교 야칭스10일 진정한 러벳수행, 만여분의 스님들의 수행처	출발가: ₩150/30
출: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덴-레를지	
출: 9월3일	대만 공승제 5일 증례선사, 불광선사, 자제궁회	